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은 가족이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모범을 제시한다.

### <예 배 순 서>

인도 : 가족 중 어른

목도	.....	다함께
성시	..... 시편 1편 1-3절	인도자
찬송	..... 28장(28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	가족 중(다함께)
성경봉독	..... 로마서 12장 2절	인도자
메시지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인도자
찬송	..... 384장(434장)	다함께
주기도	.....	다함께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설날은 전통적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보람되고 가치 있게 보낼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설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할 듯이 달려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방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모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세상의 틀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세상 문화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설날 되도록

##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설날 연휴가 금주에 시작된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명절만 되면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번 설날을 하나님

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 그러나 안 믿는 가족들의 양심과 전도를 위해 삼가고 기도하는 설날 연휴가 되도록 하자.



### 태풍피해 선교지 방문

#### - 팔라우, 정상진 선교사 사역지로 -

우리교회는 1월26일부터 30일까지 지난 해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팔라우 정상진 선교사 사역지를 방문하고 위로한다.

이번 선교여행에는 우리교회 박노철 담임목사와 오정수 장로, 이영기 장로 신용식 장로, 이준호 집사 등 5

명이 함께 할 예정이며 태풍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울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태풍 특별구제헌금도 전달할 예정이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 2014년 1학기 장학금 수여

오리엔테이션: 2월 2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장학금 수여식: 2월 2일(주일) -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4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48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송암장학생-24명**  
정지영 문준영 박유란 한현지 이다현 노희균 정상준 이명준 김기남 이윤재 길수정 이충원 이예원 나인영 정다영 박서정 김진안 이창재 한동현 임주현 이신원 이신영 이성화 오소정
- **고등부-1명** 김태현
- **디아스포라부-9명**  
최아라 권영숙 홍지아 김혜경 유수정 박효진 김진수 최현화 조영금
- **교역자, 선교사 자녀-11명**  
서윤영 우하은 김예림 이준행 김예나 정에스터 김하은 조라빈 조라혜 이평화 황성진
- **호산나전문대학-3명** 이현상 김종열 노다운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6)

(문 116)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정확히 몇 살이었습니까?

(답) 열왕기하24:8에서는 여호야긴이 18세 때 왕이 되었다고 했으나 역대하36:9에서는8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를 필경하던 이 중 누군가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류(類)의 오류는 사본을 만들 때 초기 사본의 얼룩집이나 훼손 때문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숫자 표시는 5세기경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가 에스라의 삼독 하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그때 십(10)을 위한 싸인으로 오른 쪽 끝에 있는 갈고리 끝을 수평적으로 한 획을 그었습니다. 두 개의 획을 그으면 이십(20)이 왕하8:26) 되고, 십(10) 아래의 숫자들은 수직적 획의 줄로 표시했습니다. 수직적 획은 셋이 그룹이 되어 표시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이 숫자를 획으로 표시할 때 필경사의 실수는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18과 8의 차이는 획 하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36:9(8세)의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8세에 왕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부터 무리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는 7세에 왕이 되었고(왕하11:21) 요시아는 8세 때(왕하22:1) 왕이 되었지만 갈대아 사람들은 그를 책임 있는 성인으로 취급하고 597 BC에 그들에게 항복케 한 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4) 사본의 필경사가 십(10)을 가리키는 획을 잘못 보고 빠뜨림으로 생긴 오류가 역대하에 기록으로 남아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아주 어린 시절 즉 16세 또는17세 때 그를 낳았어야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608년에 그의 나이 25세 때 등극했고(왕하 23:36)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598년에 그의 나이 즉 18세 때 왕이 되었다면(왕하24:8) 그들 사이에는 17년 또는 18년 밖에 나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 기독교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 <기도와 관련된 용어>

#### 3. 주여.하나님 아버지시여 → 주님.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라 부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법상의 문제가 있다. 즉 2인칭 존칭명사에 호격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2인칭 존칭명사에 호격조사가 붙지 못한다. 2인칭에는 존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호격조사 '-아나'-야가 붙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친구 사이나 아랫사람에게는 "복동아." "철수야." 와 같이 부를 수 있지만 손윗사람에게는 호격조사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시여." "할아버님이시여."라 부르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존칭의 2인칭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사어가 된 '-이여', '-이시여'를 붙여서는 안 되고 그저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해야 옳다.

#### 4. 우리 성도님들이 → 저희들이, 교회의 권속들이 ...등등

국어 존대법에서는 청자(聽者)가 최상위자일 경우 다른 어떤 인물에게도 존대를 쓸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은 바른 표현이 못된다.

"할아버지. 형님이 가셨어요." "아버지. 누님이 오셨어요."  
첫째 문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자인 '할아버지'와 주어인 '형님' 및 화자(話者)인 손자 '나'다. 여기서 청자인 '할아버지'가 최상위자이므로 '형님'과 '나'는 존대를 받을 수 없다.

둘째 문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자인 '아버지'와 주어인 '누님'과 화자인 '나'다. 여기서도 청자인 '아버지'가 최상위자이기 때문에 '누님'과 '나'는 존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할아버지. 형이 갔어요." "아버지. 누나가 왔어요."  
공중기도에서 기도 인도자는 회중과 동일한 입장, 동일한 위치에서 있는 것이다. 즉 기도 인도자는 회중과 동격이다. 그러므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회중을 가리켜 '우리 성도님들'이라 존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 '교회의 권속들'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



신년 칼럼

# 새해의 전망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판단을 예견해 신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verba)을 하나님이 그 입에 두시는(신 18:18, 렘1:9) 말씀의 대언자(代言者)였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취됐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바르게 결단하자는 차원에서 한반도의 새해 전망을 해보자.

## 폭발 직전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

철웅성 갈던 김씨 왕조 체제가 심히 요동하고 있다. 21세기 서구민주주의 시각을 갖고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북한은 300만 내지 500만명의 노동당 당원과 800만의 사회주의 동맹을 감시하고 있는 5만 내지 7만명의 보위부원들만이 그들이 주장하는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뿔뿔 뭉쳐 있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요지부동의 철통국가로 자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에 심각한 균열 현상이 나타났다. 토끼를 잡은 다음 사냥개를 삼는다는 김일성부터의 토사구팽(兎死狗烹) 전략대로 김정은은 2인자를 무참하게 처형했다.

따라서 백성들의 심정적 지지는 이미 물 건너갔고 현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껴 다음 차려가 누구냐는 불안 속에 빠진 오늘의 북한은 내부적으로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이다. 북한인권 사항은 전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최대 관심사로 북한 정권은

##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바르게 결단하라!

국제사회에서 동지도 친구도 없는 외톨이가 됐다. 중국은 실용주의 국가다. 그래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내정간섭은 안한다는 이유로 침묵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북중 접경지대에 대규모 군인들을 이동시켰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군사훈련을 계속하므로 북한으로서는 또 하나의 압박이 아닐 수가 없다.

미국은 한반도에 급변사태 발발시 6가지 상황을 걸어놓고 준비한 작계5029를 가동시킬 전 단계에 돌입했고,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돌발행위와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피의 숙청이 계속될 경우 소위 로열 패밀리들이나 외교관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밧물 터지듯 탈북 할 것이다.

북한의 내부 불안정이 지도층의 충돌로 계속되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압력을 심화시키므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정권 붕괴는 시간문제다”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는 2020년이 되면 북한은 없어질 것이고 2012년 이후 북한 내부 권력이양이 북한 자체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외통수에 걸린 멧돼지 같은 김정은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남한에 화살을 날릴 것이다.

## 우리의 응전, 통일의 전환점이 될 수도

북한의 선택은 내부단결용으로 항시 써오던 외부도발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북한 내부의 불안 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인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3월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트집잡아 도발할 것을 예견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응전 여부에 따라 통일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국회는 비록 상징적 의미라고는 하지만 UN이 결의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하에 제정 통과시켜야 한다. 외교

문제와 국가안보 문제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정원을 개혁한다면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것을 빌미로 무력화하거나 간첩 잡는 수사권을 경찰이나 검찰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국가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이고 민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엘리트화해야 한다.

국내에 파고든 5만여명의 간첩들과 종북사상의 뿌리를 근절시켜야 한다. 장성택 사건에 대해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는 친북좌파도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국민화합에 함께 해야 한다.

##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 뿐이고, 마음이 변하지 않은 모든 것은 낡은 것의 반복일 뿐 새것은 없다. 지금 우리 마음에 진리, 자유, 정의, 진실, 믿음, 소망, 사랑을 품었다면 새해가 될 것이고 거짓, 시기, 분쟁, 탐욕의 옛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새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환경의 변화만 기다리면서 원망, 시비만 하고서는 새 출발을 할 수 없다. 목표가 내게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화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찾아가 화해와 희생을 할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라. 내가 새로워질 때 가정, 사회 그리고 나라도 새로워진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 격이 됐으니 우리는 새 마음을 품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춰 지금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새 출발의 에포크(Epoch), 보람의 신기원을 여는 도약의 디딤돌을 놓도록 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만민에게 전도 - 비전트립을 준비하며

# 미안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양옥희 집사 (4교구)

샬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서울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생각이 듭니다. 2011년 4월 제 암수술을 위하여 서울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평안히 모든 치료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 그 때의 감사

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늦었지만 지면을 통하여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2014년 2월 3일부터 11일까지 미안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장석남목사님, 최차순단장님을 포함한 10명의

미안마비전트립단원이 구성되어 매주 수, 토요일에 모여서 제반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각자 맡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도 치료과정에 있어서 다른 비전트립 단원들에게 집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2013년 미안마기도팀장으로 임명되어서 신자목사님의 22명의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해 왔기에 과감히 미안마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유학중인 훈과망(HLON KHUAMANG)목사님으로부터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사역하는 모습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안마는 공식적으로 불교가 더 이상 국가의 공인종교는 아니지만 군사정권은 이를 활발하게 장

려하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소수종족들 사이에서는 기독교가 왕성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가난하여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을 개설하여 하루종일 공부를 시키고 식사를 제공하고, 가난한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시켜서 자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시고 계십니다.

현지에서는 여름옷과 어린이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색연필, 공책 스케치북 등)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기증해주시면 현지선교사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 격려 그리고 후원부탁드립니다.



